

페미니즘 사상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서

북은지식양성소

여성학자들이 페미니즘 사상사를 논문에서 정리할 때 많이 인용하는 책을 꼽자면(국내 번역된 것 기준으로),[리사 티틀](#)의 <페미니즘 사전>, [로즈마리 통](#)의 <페미니즘 사상>, [수잔 왓킨스](#)의 <20세기 여성 작가들>(국내에서는 <페미니즘 이론과 비평>으로 번역), [조앤 스콧](#)의 <페미니즘 위대한 역사>, [제인 프리드먼](#)의 <페미니즘>이 있습니다.

최근에 이학사에서 번역한 [엘리슨 스톤](#)의 <페미니즘 철학>은 페미니즘 사상사에서 굵직하게 다루어진 주제(특히, 본질주의와 사회적 구성주의 간 대립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깊게 다루었습니다)를 논하는 책입니다.

모두 페미니즘 사상사를 종합한 책으로, 자잘한 소주제에 관한 각 섹트의 견해도 다룹니다. 당연히 각 페미니스트의 일차 문헌을 읽는 것보다는 깊이가 얕지만, 기본기를 다지기에는 매우 좋은 책입니다.

해외 페미니스트들의 투쟁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싶다면, 그나마 포괄적으로 정리된 책이 [코스타](#)의 <페미니즘의 투쟁>이 있습니다. 근대 초 제1물결의 역사적 흐름을 알고자 한다면 [이세희](#) 교수님의 <프랑스대혁명과 여성·여성운동>을 추천합니다. 해외 종합서에 뒤지지 않는 책이라 생각합니다.

나열한 모든 책은 부르주아 당파성에 기초하여 작성된 문헌입니다.

참고로, 다른 분이 추천해주신 <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>은 각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활동한 마르크스주의자의 글을 발췌하여 이어놓은 책에 불과합니다. 이 문헌은 페미니즘 사상사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정리한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.